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오정림¹, 손호희^{2*}, 김기열¹

¹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²부산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The Study on Physical Therapy Students Attitude and Behavior for the Person with Disability

Jung-Lim Oh¹, Ho-Hee Son^{2*}, Gi-Yeol Kim¹

¹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aewon University College

²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요약 이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된 전국 대학 중 6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총 800부 중 776부를 회수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차이에서 남학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학제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에서는 장애인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관련 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봉사활동의 경험과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 태도와 행동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의 질과 기회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행동이 형성된다고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의 장애인 인식의 개선과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toward the disabled. The subjects were 776 students at 6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with physical therap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800, and 776 returned forms was analyzed using SPSS 21.0 ver. As a summary of the results, first, there was a more positiv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behavior toward disabilities in men than women; the higher grade they were, the more negativ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the disabilities. Second, the subjects with disabled family members or friends had a positive attitude and behavior. Third, there was no difference as to whether to take classes related to disabilities, and there was a positiv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udents who took voluntary service. Based on these results, interactions with disabled people affect the positive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disabilities. In addition, implications of the important roles of education curricula to take direct experience are suggested.

Keywords : attitude, behavior, disabled, physical therapy

1. 서론

국가 통계 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00년도 145만여 명에서 2013년 250만 명

으로, 13년 동안 무려 58%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 인구(50,219,669명) 대비 약 4.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1,2]. 이처럼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정부의 복지 시책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등록된 장애인

*Corresponding Author : Ho-Hee Son(Catholic Univ. of Pusan)

Tel: +82-51-510-0577 email: sonhh@cup.ac.kr

Received October 2, 2015

Revised (1st October 22, 2015, 2nd October 28, 2015)

Accepted January 5, 2016

Published January 31, 2016

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평균 수명의 향상과 현대 사회의 고령화, 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산업 재해 및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3,4]. 현재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재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5].

효율적인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대면하는 직업군이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주도적,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5,6].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또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서비스인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7]. 또한 장애인의 재활에 관여하는 장애 시설을 비롯한 재활 시설의 재활 전문 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재활 관련 직업군의 자질에 관한 적절한 교육과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차별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8,9].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서 장애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태도 조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10,11].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아동과, 장애자녀를 둔 부모, 가족, 교사 및 예비교사의 조사 연구에서 시작하여,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12,13], 전공 교과목과 관련된 교육 후의 태도 변화를 본 연구[14]를 포함하여, 최근 장애인 재활과 관련된 직업 관련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로, Choi[9]는 재활 기관 직원들이 일반인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이라고 보고하였고, White와 Olson[15]은 작업치료사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 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이라고 하였으며, Jung과 Kim[16]은 간호사 집단이 의사 집단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이라고 보고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동일한 의료 현장이라

하더라도 역할 관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4], 직업 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7], 응급구조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8], 보건의료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0] 등이 있으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태도와 행동에 있어 태도는 인지적인 측면을 말하며, 행동은 정서 요소와 행동 요소를 의미한다. 장애인의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긍정적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장애인이 나와 같은 사무실에 일한다는 것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태도와 행동을 모두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1].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의 주요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관한 태도와 행동을 조사해 봄으로써, 미래의 의료재활서비스의 주체가 될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을 점검하고, 치료사로 사회에 나가 만나게 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경기, 충북, 경북, 경남, 강원, 전남 지역의 대학 6곳을 선정하여 성별, 학년별, 장애 관련 강좌 수강 여부, 장애 경험 유무 별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지의 조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자기 기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800부를 배부하여 이중 불성실 응답자 및 사용 불가능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776부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Jang과 Shin[20]이 사용한 장애인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관한 문항은 무조

건적인 거부(GR) 7문항, 왜곡된 동일시(DI) 5문항, 추론된 정서장애(IEC) 7문항, 손상을 입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IFL) 6문항, 친교의 거부(RI) 6문항, 접촉시 긴장감(IS)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전적으로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행동을 묻는 문항은 ‘지역에 장애인 기관의 설립을 허락하겠는가?’, ‘집에 장애인을 재워 줄 수 있겠는가?’, ‘지역에 이사 온 장애인을 이웃으로 받아들 이겠는가?’, ‘장애인을 회사에 고용하겠는가?’, ‘장애인을 친구로 삼겠는가?’, ‘장애인을 애인으로 환영하겠는가?’, ‘장애인과 결혼을 하겠는가?’, ‘자식을 장애인과 결혼 시키겠는가?’의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전적으로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하위 변인과 행동 척도의 측정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항목에서 0.91, 장애인에 대한 행동 항목에서 0.71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Reliability of attitude and behavior on each variables

variables	total	Cronbach α
Attitude on disabilities person	37	0.91
Generalized Rejection : 1, 7, 13, 19, 25, 31, 36	7	0.66
Distressed Identification : 2, 8, 14, 20, 26	5	0.61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 3, 9, 15, 21, 27, 32, 37	7	0.73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 4, 10, 16, 22, 28, 33	6	0.72
Rejection Intimacy : 5, 11, 17, 23, 29, 34	6	0.54
Interaction Strain : 6, 12, 18, 24, 30, 35	6	0.59
Behavior on disabilities person : 1, 2, 3, 4, 5, 6, 7, 8	8	0.71
Total	45	

2.3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별, 장애인과의 경험 여부, 장애 관련 교육 수강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

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값을 분석하였다. 전국 6개 대학 및 대학교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고, Tukey HSD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α)은 .05로 하였다.

3. 결 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M \pm SD) (N=776)

Variables		n(%)		
sex	f	557(71.8)		
	m	219(28.1)		
Age	<20	359(46.3)		
	20-29	411(52.9)		
	\geq 30	6(0.8)		
Religion	Buddhist	90(11.6)		
	Christian	159(20.5)		
	Catholic	77(9.9)		
	Atheist	439(56.6)		
	Others	11(1.1)		
grade	3	4	388(50.0)	388(50.0)
	1	1	141(18.2)	95(12.2)
	2	2	134(17.3)	95(12.2)
	3	3	113(14.6)	101(13.0)
		4		97(12.5)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y	yes	99(12.8)	
	no	677(87.2)		
friends with disability	yes	93(12.0)		
	no	683(88.0)		
interaction	yes	405(52.2)		
	no	371(47.8)		
class related disability	yes	336(43.3)		
	no	440(56.7)		
volunteer experience related disability	yes	210(27.1)		
	no	566(73.0)		

3.2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무조건적 거부(GR), 왜곡된 동일시(DI), 접촉 시 긴장감(IS)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추론된 정서장애(IEC), 기능의 제한(IFL), 친교의 거부(RI)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차이는 남학생이 3.17 ± 0.58 점, 여학생이 3.04 ± 0.54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between sex(Mean±SD) (N=776)

variables	male (n=219)	female (n=557)	t	
Attitude	GR	2.44±0.55	2.56±0.51	-2.99*
	DI	2.59±0.61	2.70±0.60	-2.24*
	IEC	2.50±0.59	2.54±0.57	-0.80
	IFL	2.48±0.67	2.51±0.55	-0.56
	RI	2.32±0.53	2.38±0.54	-1.34
	IS	2.31±0.53	2.39±0.49	-2.13*
Behavior	3.17±0.58	3.04±0.54	2.96*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3 학제 간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3.3.1 3년제 대학의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의 결과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05$)[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among grades in a 3-year university(Mean±SD) (N=776)

variables	1	2	3	F	
Attitude	GR	2.58±0.47	2.55±0.57	2.57±0.51	0.12
	DI	2.69±0.56	2.73±0.66	2.73±0.57	0.47
	IEC	2.59±0.51	2.62±0.68	2.56±0.52	0.39
	IFL	2.57±0.59	2.62±0.65	2.54±0.57	0.52
	RI	2.32±0.48	2.47±0.72	2.41±0.47	2.36
	IS	2.39±0.48	2.44±0.50	2.33±0.50	1.57
Behavior	3.14±0.50	3.03±0.58	3.07±0.62	1.23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3.2 4년제 대학의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왜곡된 동일시(DI), 친구의 거부(RI)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among grades in a 4-year university(Mean±SD) (N=776)

variables	1	2	3	4	F Tukey	
Attitude	GR	2.55±0.52	2.46±0.58	2.45±0.55	2.51±0.48	0.70
	DI	2.60±0.53 ^a	2.57±0.69 ^b	2.53±0.58 ^c	2.77±0.56 ^d	3.01* c<d
	IEC	2.47±0.53	2.39±0.64	2.48±0.56	2.50±0.54	0.71
	IFL	2.49±0.56	2.36±0.61	2.37±0.55	2.49±0.50	1.67
	RI	2.33±0.46 ^a	2.23±0.53 ^b	2.32±0.51 ^c	2.45±0.45 ^d	3.03* b<d
	IS	2.36±0.53	2.27±0.59	2.35±0.50	2.37±0.44	0.71
Behavior	3.12±0.54	3.07±0.65	3.05±0.53	3.05±0.46	0.31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4 장애인 가족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장애인 가족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 > 0.05$) 장애인에 대한 행동 항목에서는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3.24 ± 0.58 점, 장애인 가족이 없는 경우 3.05 ± 0.55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Table 6].

Table 6.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with or without disabled family member(Mean±SD) (N=776)

variables	yes (n=99)	no (n=677)	t	
Attitude	GR	2.48±0.50	2.54±0.53	-1.03
	DI	2.59±0.59	2.68±0.60	-1.39
	IEC	2.48±0.60	2.53±0.57	-0.95
	IFL	2.47±0.68	2.51±0.57	-0.55
	RI	2.28±0.47	2.38±0.54	-1.66
	IS	2.32±0.52	2.37±0.50	-1.06
Behavior	3.24±0.58	3.05±0.55	3.06*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5 장애인 친구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장애인 친구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에서 무조건적 거부(GR), 접촉시 긴장감(IS)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장애인에 대한 행동항목에서도 장애인 친구가 있는 경우 3.24 ± 0.65 점, 없

는 경우 3.06±0.5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with or without disabled friend(Mean±SD) (N=776)

variables		yes (n=93)	no (n=683)	t
Attitude	GR	2.39±0.49	2.55±0.53	-2.67*
	DI	2.66±0.61	2.67±0.60	-0.17
	IEC	2.49±0.59	2.53±0.57	-0.60
	IFL	2.45±0.55	2.51±0.59	-0.94
	RI	2.28±0.49	2.37±0.54	-1.49
	IS	2.25±0.45	2.38±0.51	-2.28*
Behavior		3.24±0.65	3.06±0.54	2.93*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6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생활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생활경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무조건적 거부(GR), 친교의 거부(RI), 접촉시 긴장감(IS) 항목에서 생활경험이 있는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행동항목에서도 생활경험이 있는 경우 3.14±0.58점, 생활경험이 없는 경우 3.03±0.5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8].

Table 8.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between experiences related disabilities person(Mean±SD) (N=776)

variables		yes (n=329)	no (n=447)	t
Attitude	GR	2.48±0.54	2.56±0.52	-2.15*
	DI	2.65±0.60	2.69±0.60	-0.90
	IEC	2.49±0.56	2.55±0.59	-1.42
	IFL	2.46±0.60	2.54±0.58	-1.85
	RI	2.29±0.49	2.41±0.56	-3.06*
		IS	2.32±0.51	2.40±0.50
Behavior		3.14±0.58	3.03±0.54	2.71*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7 장애 관련 강의 및 특수교육 관련 수강 과목 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장애인에 대한 수업이나 특수교육 관련 강의 수강 횟

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9].

Table 9.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among class subject number related disability(Mean±SD) (N=776)

variables		no class subject	less than 3 subject	more than 3 subject	F
Attitude	GR	2.52±0.53	2.55±0.52	2.52±0.52	0.24
	DI	2.65±0.59	2.71±0.62	2.69±0.62	0.75
	IEC	2.52±0.61	2.54±0.54	2.52±0.51	0.07
	IFL	2.46±0.56	2.55±0.60	2.57±0.63	2.34
	RI	2.36±0.57	2.38±0.47	2.33±0.51	0.36
		IS	2.36±0.52	2.40±0.47	2.33±0.52
Behavior		3.05±0.56	3.11±0.54	3.11±0.58	1.08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8 자원봉사 활동 경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자원봉사 활동 경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5), 장애인에 대한 행동 항목에서는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3.15±0.62점, 경험이 없는 경우 3.05±0.5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10].

Table 10.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between volunteer experiences(Mean±SD) (N=776)

variables		yes (n=210)	no (n=566)	t
Attitude	GR	2.53±0.51	2.53±0.53	-0.12
	DI	2.68±0.62	2.67±0.60	0.23
	IEC	2.51±0.54	2.53±0.59	-0.52
	IFL	2.46±0.57	2.52±0.59	-1.29
	RI	2.33±0.46	2.37±0.56	-0.88
		IS	2.33±0.48	2.38±0.52
Behavior		3.15±0.62	3.05±0.53	2.35*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4. 고 찰

본 연구는 미래의 의료재활을 담당할 예비 치료 인력인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을 파악하고자 물리치료(학)과 3년제 대학생 388명과 4년제 대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Park[21]은 태도와 행동은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되고 한번 잘못된 태도와 관념이 형성되면 나중에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게 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보마저도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차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고 치료해야 할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해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전체 대학생 혹은 의료 직업군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와 비교하였다.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20,22]이거나 남성이 긍정적[23], 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24,25]는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있어 성별 요인은 집단에 따라 주어진 상황이나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요인에 비해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26]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를 통합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비교하였으며, 장애인과의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통합교육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장애를 가진 사람과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좀 더 호의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동일하며,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행동과 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한 접촉 기회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 관련 강의 및 특수 교육 관련 강의를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이론적인 강의와 지식보다는 실제적으로 장애인과 접촉한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Oh 등[27]은 장애인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하였으나 Choi[28]는 TV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결과, 같은 장애인 관련 TV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관점과 표현방식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장애인과 접촉하는 경험의 기회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의 단순 접촉의 경험보다는 접촉에 대한 인상과 사회적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29] 호의적인 접촉의 기회와 지속적인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3년제와 4년제 대학의 학제간의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4년제 학제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왜곡된 동일시와 친교의 거부 항목에서 부정적 태도가 보였다. 이는 Jang과 Shin[20]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 태도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는 다르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연구한 Lee[30]의 연구, 보건의료 학생의 신체적 장애 학생에 대한 태도 연구를 한 Kim 등[1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학생이 임상 실습을 시작할 때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가 저하된다고 보고한 연구[31]와 치료적 환경에서의 만남이 사회 또는 사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태도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32]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 관련 교육과 임상실습의 시기에 관한 적절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장애 가족 또는 친구가 있는 경우,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경우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었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이거나 장애 관련 또는 특수교육 관련 강의 수강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론적 강의, 임상경험 등의 수동적 접촉이 아닌 자원봉사 등 개인의 선택과 의지가 포함된 경험이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 형성에 중요하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형성이 중요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Kim 등[19]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우선 교육 과정에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 선택

참여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대학 내에 보건의로 학생과 장애 학생의 접촉 경험을 늘리기 위한 모임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접촉 경험의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경로의 교육과정의 제공과 대학 전체로의 확대를 포함한 인성 교육의 한 부분으로 제공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경기, 충북, 경북, 경남, 강원, 전남 지역의 대학 6곳을 선정하여 성별, 학년별, 장애 관련 강좌 수강 여부, 장애 경험 유무 별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남녀 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항목에서 남학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 간 차이에서 4년제 학제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에서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친구가 있는 경우, 긍정적 태도와 행동이 나타났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태도와 행동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이 행동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의 질과 기회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행동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의 장애인 인식의 개선과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행동의 변화와 인지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여 지속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assessed April, 23, 2015)
- [2] http://kosis.kr/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1&NUM=1(assessed June, 8, 2015)
- [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ety Affairs,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 in 2005. Seoul:GPO 2006.
- [4] M. S. Kwon and J. H. Lee,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the Disable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6, pp.3667-3674,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6.3667>
- [5] K. S. Kim, Y. H. Park, B. S. Lee and J. Y. Kim, "Comparison of the Attitudes Toward and Contact with Disabled Person among Health care Professionals, La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Korean J Rehabil Nurs, Vol.13, No.1, pp.13-22, 2010.
- [6] R. C. Travo, G. Palmar, and P. Redinius, "Medical student' attitudes toward person with disability : A Comparative stud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Vol.83, No.11, pp.1537-1542, 2002. DOI: <http://dx.doi.org/10.1053/apmr.2002.34620>
- [7] J. A. Kwon,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6.
- [8] I. H. Kim,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the Disabl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2.
- [9] G. H. Choi, "Attitudes of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6, No.4, pp.119-136, 2012.
- [10] J. S. Lee, "A study on Attitudes toward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Kor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26, pp.151-176, 2005.
- [11] Y. S. Kang,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Children on Integrated Childcare Attitudes in Regular Par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7, pp.2991-2999,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7.2991>
- [12] A. Naamia and R. Hayashib, "Perceptions about Disability among Ghana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ocial Work i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No.11, pp.110-111, 2012. DOI: <http://dx.doi.org/10.1080/1536710x.2012.677616>
- [13] C. S. Yu,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of Disabl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2.
- [14] J. A. Sowers and M. R. Smith, "Nursing Faculty Member's Perceptions Knowledge, and Concerns About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 No.3, pp.1537-1542, 2004.
- [15] M. J. White and R. S. Olson,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Rehabilitation Nursing, Vol.23, No.3, pp.126-131, 1998. DOI: <http://dx.doi.org/10.1002/j.2048-7940.1998.tb01764.x>
- [16] H. K. Jung and M. H. Kim, "Attitude of Physical and Nurses Toward with Disabled Person", Korean J Rehabil Nurs, Vol.7, No.2, pp.213-219, 2004.
- [17] J. S. Kwag, Y. J. Kim and S. H. Woo, "The survey of dental hygiene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the disabled", Journal of Korea Contents, Vol.9, No.7, pp.214-247, 2009.

DOI: <http://dx.doi.org/10.5392/jkca.2009.9.7.241>

- [18] K. S Choi, "EMT-Paramedic student's Attitude to Disabled",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Vol.15, No.2, pp.85-99, 2011.
- [19] K. K Kim, Y. J. Kim and J. W. Chae, "Factor Affecting Attitudes of health Care Professional Students Toward Physically Disabled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21, No.1, pp.57-66, 2007.
- [20] C. Jang and H. S. Shin, "Study on th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ttitudes and Behaviors for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Vol.8, No.3, pp.317-326, 2013.
- [21] E. G. Park, "A Study on the Attitud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toward the Mentally Retard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5.
- [22] G. H. Choi, "Personality Types of Students in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and Engineering and their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21, No.2, pp.141-160, 2011.
- [23] G. J. Oh, "The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of the Physically Disabled"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0, No.1, pp.811-820, 2001.
- [24] H. W. Lee and W. R. Lee, "The Study of Attitude toward Disability of Persons without Disabilit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3, No.5, pp.471-492, 2004.
- [25] S. Song and J. M. Kim, "The effect of factors on the university students' acceptive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9, No.1, pp.83-99, 2008.
- [26] E. Y. Kim, "A study on comparison of the non-disabled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according as presence or absence of experiences of integrated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05.
- [27] A. R. Oh, J. H. Lee and J. J. E, "Effects to Teenagers' Attitude Regarding the People with Disabled from TV Documentary Programs Related to Adapted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46, No.1, pp.981-990, 2011.
- [28] E. J. Choi, "An Experimental Study on Effects of TV Program about Disabilities on College Students' Attitude to the Disabled Perso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46, No.2, pp.67-99, 2009.
- [29] S. A. Ryu, "The effect of contact experiences with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on the attitude of employ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22, No.1, pp.51-70, 2012.
- [30] J. S. Lee, "Cognitive bases and Behavioral bases of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 An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in JeollaBuk Do", Journal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Vol.4, No.2, pp.39-57, 2004.
- [31] P. K. Benham, "Attitudes of occupational therapy Personal toward person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No.42, pp.305-311, 1988.
DOI: <http://dx.doi.org/10.5014/ajot.42.5.305>

- [32] R. C. Tervo, "Health Professional Student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y", Clinical Rehabilitation, No.18, pp.908-915, 2004.
DOI: <http://dx.doi.org/10.1191/0269215504cr820oa>

오 정 림(Jung-Lim Oh)

[정회원]



- 2003년 8월 : 대구대학교 재활학과 물리치료전공(이학석사)
- 2006년 8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물리치료전공 박사 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관심분야>

운동치료, 소아 및 신경계물리치료

손 호 희(Ho-Hee Son)

[정회원]



- 2007년 8월 : 대구대학교 재활학과 대학원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전공(이학석사)
- 2011년 8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물리치료전공(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생리학, 노인물리치료, 의학통계학

김 기 열(Gi-Yeol Kim)

[정회원]



- 1996년 8월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보건학 석사)
- 2000년 2월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과(보건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물리치료, 지역사회물리치료